



양혜규의 '예술가의 세상'.



장면에 실린 양혜규의 작품.

새로운 '세계 만들기' 한국작가에 주목

'문화예술올림픽'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세계 미술계의 여왕 베니스로 집중되고 있다. 1805년 시작해 올해도 53회째를 맞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세계 만들기'란 주제로 7월 개막해 11월 22일까지 6개월간 계속된다. 스웨덴 출신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활동하는 큐레이터 다니엘 리바올(46)이 총감독을 맡은 이번 행사는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으로서 예술의 생성과정'이란 수제를 본전시 작가 90명과 77개 국가관 참여작가들에게 맡겼다. 리바올은 "세계를 만들기 가장 미술제도의 맥락과 예술시장의 요구 부합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을 탐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도에 맞게 작가의 명명보다는 주제에 맞는 작품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관 작가인 양혜규와 함께 구정아씨가 본전시에 초대되고, 비엔날레와 같은 기간에 베니스 시내에서 열리는 특별전에 사진작가 김아라씨가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한국작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지난 4월부터 사흘간 전시회를 맞아 베테랑 국립현대미술관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 김성진 한국예술총연합회 교수, 우한규 학교대 대표, 이현숙 국제갤러리 대표 등 미술계 인사들이 베니스를 찾았다. 한국관 커미셔너인 뉴욕 뉴 뮤지엄 오브 인터내셔널의 이보의 다펠라 주은지씨, 한국인 최초의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큐레이터가 된 정도병씨도 참석했다.

올해 참가한 한국작가들은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풍부하다. 조카-성장을 결합한 한국관 작품 '유망'도 호평을 얻은 양혜규씨(38)는 10년 이상 독일에서 활동해 왔다. 2006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2008년 런던 윌릿갤러리와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전시를 열었으며 국내에서는 2005년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개인전 '사실은 1번지'도 첫 선을 보였다. 비엔날레 공간이 주는 의미를 주로 탐구해온 그는 지난해 독일의 시사잡지 '커리큘럼'이 선정한 세계 100대 미디어아티스트가 중 한인으로서는 이렇듯의 함께 리스트에 올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자라다니(양혜규)의 한국관 건물.

명망보다 작품성... 양혜규·구정아 초대 한국관 유태파·젊은 작가 편중 지적도

이번에는 이번 비엔날레 참가를 계기로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브뤼넬 미술관에서 전시 제의를 받았고 카네기 인터내셔널 본전시에도 출품했던 70년대 광민교파와 일베센의 연우승(약 1억4000만원)에 판매했다. 또 내년에는 아르산센터 전시회를 통해 국내 관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작품세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구정아씨(41) 역시 본전시에 초대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1992년부터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런던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04년 뮌헨비엔날레 전시에 이어 2005년 예르메스 크라이 미술상을 수상해 국내에 알려졌지만 자신의 선별노출을 꺼리고 알뜰사 진조자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정된 속 나무통자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동하는 작품과 진디밭에 5개씩, 크기의 범위 100여개를

박은 작품을 선보였다. 장면에 실린 두 작품을 찾아보려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김아라씨(53)도 갈라리로 개조한 필라조 빌딩에서 "ATTAKMOMON-AR"전을 열며 유럽에서의 교류도 확대에 나섰다. 그는 베니스 국제공동체 전시모습의 전경관을 설치할 만큼 적극적이다. 2007년 빌라조 재단의 협력선 이후 작품값이 저조하고 있는 김씨는 이번 전시에 세계 유명도시의 사연을 무수히 촬영한 후 한 점에 걸쳐서 인터뷰하는 '인답다시르르'를 선보였다.

이처럼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이 돋보이는 작가들이 비엔날레 전면에 나서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비엔날레 초기의 강자층(1997년·마이클 주(2001년)를 비롯, 서도호(2001)·이영구(2007) 등도 유태파 작가들이다. 그러나 한국관이 자리잡고 있는 작가들에게 지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는 역시도 값비싼 다른 비엔날레와 달리 국가관이란 여건 때문에 운영에 문화올림픽의 성격이 부여된다. 이 때문에 어느 세남에 (홍 조스스) 지역에서 열리는 본전시와 함께 각 국가들이 카르디나(공관) 지역에 자체 예산으로 국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 1995년 자라다니의 마지막 자국의 장소에 70평 규모의 협소한 전시공간을 짓고 엄청난 이후, 중·일도 등 다른 국가들은 주무도가 떨어지는 지라다나 비엔날레 국가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을 알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한국관을 젊은 작가들로만 채우기보다는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원로작가들과 함께 출품하자는 지적도 있다. 고 백남준은 독일권 작가로, 아우환은 일본권 작가로 나온 적이 있으나 한국관과는 거리가 멀다. 한 갤러리 대표는 "이우환 작가의 모스커피룸은 국내에서 상용거리지만 거론될 뿐이던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고된 인정을 받고 협력선도 이뤄졌지만 "한국관 초대자가 가능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국내에서는 비평계가 젊은 작가들의 실험성 위주로 인식해 있지만 프랑스의 조카가 설치작가인 루스 부르주아는 99년 88세의 나이에도 베니스 비엔날레에 주는 총감독직을 맡았다.